

신화적 마스터플롯의 여성 젠더적 전유와 한국형 마스터플롯의 적용

- 박완서와 오정희의 '다른 어머니 되기'의 표상을 중심으로 -

선우은실*

〈차 례〉

- 플롯의 재구조화: 젠더적 관점을 중심으로 마스터플롯 재구축하기
- '남성 영웅' 중심 플롯의 해체와 여성의 '어머니 - 되기' 정체화 서사의 재설정
- '어머니 되기'의 표상에서 '다른 어머니 되기'로 이행하는 한국형 마스터플롯
- 나가며

[국문초록]

마스터플롯은 이야기의 반복적 패턴이자 서사화의 작업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문화적 구성물로, 특정 시기 문화의 구조를 반영한다. 문화적 규범과 반복적인 이야기의 패턴(및 원형)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점은 구조에 내재한 젠더 규범을 성찰하는 데 필요하다. 마스터플롯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젠더 규범 또한 반영되어 있고 이러한 관습을 재현하는 플롯에 의해 재생산되어온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마스터플롯은 '어떤 이야기를 반복했는가'를 중심으로 다시 심문될 수 있으며 이야기의 구조와 문법에 내재된 젠더를 재평가하고 재구조화함으로써 새로 쓰기 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점에 착안하여 남성 중심 신화의 마스터플롯을 해체하고 '여성적 개념'을 중심으로 서사의 구조를 재편성하고자 한다. 이에 오디세우스 신화 마스터플롯을 전자기 남성 영웅의 자아 찾기 서사에서 전자기 여성의 '(다른) 어머니 되기'의 표상의 전환으로 읽고자 하며, 이를 박완서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형 마스터플롯으로 확장해 살필 것이다.

박완서의 전자기 배경의 작품은 작가의 전쟁 체험을 자기 서사의 변용된 형태로 제출했다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 박사과정 수료.

고 익히 평가받은 바 있다. 전쟁기 서사는 그녀의 작품 세계 내에서도 일종의 마스터플롯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기를 다루는 다른 한국 소설의 구심점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쟁기 모녀 중심 서사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 『나목』에서부터 그 패턴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완서의 전쟁기 ‘어머니’ 표상 서사는 아버지적 질서를 관통하는 어머니-여성 인물의 자아 세우기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 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의 젠더 규율 속에서 여성 스스로가 호명하는 ‘어머니-되기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오정희의 「저 언덕」에서 변용된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과 그 유비적 변용 가능성에 착안하여 박완서와 오정희의 작품을 비교하는 본고의 작업은 재해석된 여성적 개념을 한국 전쟁기 소설의 마스터플롯으로 되살림으로써 한국 소설사를 젠더적 관점에서 다시 쓰기 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신화, 마스터플롯, 여성 서사, 박완서, 나목, 오정희, 저 언덕

1. 플롯의 재구조화 : 젠더적 관점을 중심으로 마스터플롯 재구축하기

H. 포터 에벗에 따르면 마스터플롯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며 우리의 근처에 위치한 가치, 희망 그리고 공포에 대해서 말하는 스토리들¹⁾”의 집합을 의미하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²⁾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서사의 문법이자 구조다. 중요한 것은 마스터플롯이 서사에서 반복되는 인물의 구도, 갈등의 양상일뿐만 아니라 기본적 틀의 반복과 변주 위에서 인간 사회가 수호하려는 가치를 강화하는 이야기의 구조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즉 우리가 오늘날 마스터플롯으로 여기는 이야기의 구조는 오랜 시간을 거쳐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의 반복적 재현으로 볼 수 있다.

마스터플롯의 ‘오랜 시간 반복된, 변하지 않는 구조’라는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오늘날 재검토를 요청받는다. 하나, 마스터플롯이 ‘과거의 것’에 대한 반복적 지속을 의미하고 그것이 특정 시대마다의 기치에 따라 승인된 것이라면, 새로운 시대의 가치 변화와 기울에 비추어 과거의 것은 재독되고

1) H. 포터 에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학사, 2010, 99쪽.

2) 위의 책, 100쪽.

심문될 수 있다. 이는 마스터플롯의 파기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플롯의 구조는 유지된 채 내재된 가치가 전복적으로 의미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 페미니즘 관점을 통해 구조의 ‘젠더(gender)’를 파악하는 것은 기존의 관습적 규율의 젠더 편향을 가시화하는 데 유용하다. ‘일반’으로 패싱되어 온 남성 중심적 내러티브의 코드는 비-(탈-)젠더적이지 않다. 최근 젠더적 관점으로 문화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러한 관점과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오디세우스 영웅 서사를 사이렌, 키르케, 페넬로페의 여성 정체화의 서사로 전환시켜 읽는 노성숙의 시도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작업은 남성 중심 마스터플롯에 기대어 그것을 변형·해석한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이야기 구조’의 젠더를 비판적으로 해체함으로써 기존 플롯이 은폐한 여성적 원리를 전면화하여 플롯 자체의 젠더를 재규정할 수 있게 만든다.

이처럼 ‘마스터플롯’에 내재된 이야기의 변동 가능성을 살핌에 있어 마스터플롯의 구성 단위로서 ‘플롯’의 성격을 다시금 짚고 갈 필요가 있다. 마스터플롯은 플롯의 구조화라는 측면에서 애초에 ‘플롯’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다. 피터 브룩스에 따르면 “플롯은 해석적 순서 짓기의 역학”³⁾이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해석’됨으로써 구조화된다는 점, 그리고 이 이야기화하려는 행위가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플롯은 우리가 정의한 바와 같이 내러티브의 조직선이며 내러티브의 의도이다. 따라서 오로지 텍스트의 연속과 시간의 연속을 통해 발전하는 의미들을 만들어가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플롯은 하나의 활동 내지 구조화 작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이렇게 볼 때 플롯은 독자의 “능력(competence)”에 속하며, 독자가 “수행(performance)”할 때, 즉 내러티브를 읽을 때, 플롯은 의미화 과정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 그러므로 플롯 읽기는 텍스트를 통한 전진 진행 욕망의 한 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내러티브는 욕망을 이야기하고-어떤 욕망의 스토

3) 피터 브룩스, 『플롯 찾아 읽기-내러티브의 설계와 의도』, 박혜란 역, 강, 2011, 53쪽.

리를 전형적으로 제시하고 - 동시에 욕망을 일으켜 의미화의 동력으로 이용한다.⁴⁾

피터 브룩스는 플롯이 재현하는 욕망이 프로이트적 의미의 성적 욕망에 근거하되 훨씬 폭넓고 다변적이라 보고, 그 욕망 서사를 통해 무언가를 읽어 내려는 “형성과 총체화의 기능을 하는 욕망”⁵⁾이 중요하다고 파악한다. 즉 내러티브는 ‘읽는 자’의 의도와 욕망을 반영한다. 이를 오늘날 젠더적 관점으로 서사를 재독하고 재창조하고자 하는 담론 구성의 흐름에 비춰볼 때, 내러티브의 핵심은 ‘기존’의 반복에 초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욕망화’에 따른 탈환에 있다. 다시 말해 마스터플롯에 대한 젠더적 해석은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이야기 구조를 새롭게 서사화하려는 내러티브의 욕망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원형은 ‘새 원형’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

관련해 노성숙의 논의⁶⁾는 그 구체적인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노성숙은 여성 ‘정체성’ 개념의 재구축에 대한 시도로 오디세우스 신화를 다시 읽는다. 노성숙은 플롯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관습에 대해 검토하며, 문화가 “능동적 생산과 작용”⁷⁾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한다. 문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이때 문화가 개별 주체의 ‘정체성’을 발생시키고 만들어가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생물학적 규정인 섹스(sex)에서 사회구성물로서 젠더(gender)로의 전환은 문화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성찰하는 데 유효한 도구가 된다. 인간의 정체성이 ‘문화적 구성물’임을 드러내는 ‘젠더’라는 장치, 인간의 관념 또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젠더적 원리에 기초해 문화를 재구조화할 수 있음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만들어지는 정체성 및 문화 규범이라는 인식 위에서, 노성숙은 오디세우스 신화에 내재한 가부장제 중심으로 구축된 ‘정체성’을 해체하고 그 개념을 여성적 관점에서 재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성숙의 논의는 오랜 이야기

4) 위의 책, 71쪽.

5) 위의 책, 72쪽.

6) 노성숙, 『사이렌의 침묵과 노래 - 여성주의 문화철학과 오디세이 신화』, 여이연, 2008.

7) 위의 책, 14쪽.

구조 즉 신화 속에 깃들여 있는 구조의 젠더를 밝혀내는 것이자 “근대적 자아와 주체성의 내러티브”⁸⁾인 오디세우스 신화가 남성 중심으로 독해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전면화하고 나아가 여성의 자아와 주체성의 획득 서사로 재독하는 일이다. 근대적 자아와 주체성의 내러티브로 이해되곤 하는 신화적 플롯이 실제로는 여성의 정체성의 구조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노성숙의 주장은 근대 주체의 자기 정체성이 여성적 개념을 근간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가시화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이어, 본고는 여성적 개념 가운데 기존의 관습적 규율과 많은 지점에서 겹쳐져 있는 ‘어머니 - 되기’의 표상을 중심으로 ‘남성 영웅’ 캐릭터 중심의 한국형 플롯을 여성의 자기 정체화의 여정으로 재독하고자 한다.

2. ‘남성 영웅’ 중심 플롯의 해체와 여성의 ‘어머니 - 되기’ 정체화 서사로의 재설정

페미니즘의 관계 이론에 따르면 자기 정체화는 지정 성별에 따라 본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타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때 자기 정체화는 일차적으로 ‘부모 - 자식’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이를 기반으로 더 넓고 포괄적인 관계로 확장된다. 이에 마땅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 - 자식’의 관계성에 따른 자기 정체화다. 노성숙에 따르면 ‘부모 - 자식’의 관계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타자들의 양육, 보살핌, 책임감”⁹⁾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양태다. 이에 근거해 ‘돌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관계의 양태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원리라 보고, ‘돌봄’의 수행을 기대 받거나 그것에 저항하는 표상으로서 ‘어머니 - 되기’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신화적 마스터플롯의 재해석과, 그것의 한국 서사로의 적용에서 특히 ‘어머니 - 자녀’의 관계 양태를 중심으로 인물이 ‘어머니 - 되기’로서 자기 정체성을

8) 위의 책, 26쪽.

9) 위의 책, 61쪽.

확보해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살피야 하는 까닭이다.

오디세우스 신화를 중심으로 한국 소설에서 남성 인물의 정체화 과정을 살핀 손정수의 논의¹⁰⁾에 따르면, 오디세우스 신화의 마스터플롯의 주 관계 구조는 '사이렌 - 영웅 남성 - 어머니/아내'다. 손정수는 프로이트를 둘러 가는 마스터플롯을 “남성 주체의 일그러진 성적 판타지 한편에 어머니로 상징되는 탈성화한 여성이 놓여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성적으로 대상화된 여성이”¹¹⁾ 놓인 구조로 본다. 손정수는 「무진기행」의 윤희중을 오디세우스의 자리에 놓고, 그를 유혹하는 사이렌에 세 여자가 놓이며, 그 반대편에 아내/어머니로 상응되는 초자아로서 페넬로페적 인물이 있다고 설명한다.

손정수의 논의가 여전히 오디세우스라는 ‘남성 영웅’을 주축으로 인물의 관계 구조를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라는 상징적 존재와 관계 맺음으로써 인물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하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어머니’ 표상에 주목할 때, 손정수가 제시한 오디세우스 플롯의 관계 구조는 ‘반(反)어머니적 존재 - 남성 영웅 - 친(親)어머니적 존재’로 고쳐쓸 수 있다. 이 구조는 노성숙의 논의를 돌아 한 차례 다시 해석된다. 노성숙은 남성 영웅을 중심 기틀로 삼았을 때 반(反)어머니 측에 서는 유혹자 사이렌을 “체화된 목소리로 노래하는 자아”¹²⁾로 해석하고 그들이 타인을 향한 인식 및 타인과의 관계 양태에 주목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반(反)어머니 측에 서서 시련을 주는 키르케를 “육망하는 자아”¹³⁾로 재독하며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탐문으로 서사를 확장한다. 한편, 친(親)어머니적 표상인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가 되돌아갈 정숙한 여인으로 독해되곤 하나 “정숙한 여성 의’의 가부장적 전형을 해체하고 ‘스토리텔링’의 주체”¹⁴⁾로 거듭나는 주체의 면모를 지닌다. 특히 페넬로페가 귀환한 오디세우스에게 마지막 심문을 내리

10) 손정수, 「오디세우스 마스터플롯의 여성적 전도 과정 - 「무진기행」의 대항서사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8), 2020.

11) 위의 글, 171쪽.

12) 노성숙, 앞의 책, 2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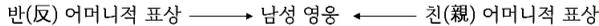
13) 노성숙, 앞의 책, 212쪽.

14) 노성숙, 앞의 책, 2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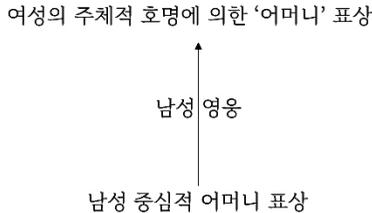
는 여성이란 점이 그렇다.¹⁵⁾

요컨대 ‘남성 영웅’을 중심으로 두고 반-어머니적 존재와 친-어머니적 존재로 나뉘는 여성들은, 남성 인물을 관통하며 ‘다른 어머니-되기’의 표상을 창조·공유한다. ‘아내가 있는 가정’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인 세이렌과 키르케는 페넬로페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들은 모두 상징적 남성을 심문함으로써 그가 돌아가려고 하는 곳이 곧 상실된 가부장적 의미의 어머니 여성의 자리임을 폭로하며, ‘어머니-됨’을 갈음하는 자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에 ‘남성 영웅’을 중심으로 한 관계도([표상1])는 여성 중심의 자기 정체화의 관계도([표상2])로 전환된다.

[표상1]



[표상2]



따라서 오디세우스로 표방되는 신화적 모티프를 지닌 마스터플롯은 남성 영웅의 자아 찾기가 아니라, 여성 인물이 남성 인물을 관통하여 여성의 목소

15) 이와 관련해 카프카의 『사이렌의 침묵』을 재독하는 레나타 살레렐의 『사랑과 증오의 도착들』(이성민 역, 도서출판 b, 2003)의 3장 ‘여성적 향유의 침묵’을 참조하라. 레나타 살레렐은 카프카의 사이렌-오디세우스 사이의 해석이 남성 영웅 쪽에 경도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바로 그러한 해석으로 하여금 “상징적 거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주체화의 전형적인 사례”로 “여성적 주체의 핵심적 특징”을 명명한다. 이로써 오디세우스는 선주체화된 사이렌에 오히려 그 자신이 매혹당했음에도 “완고하게 지속하는 여성적 주체성에 대해 무지한 남성 주체의 현실에 의해 지탱되는 남성 욕망에 관한 신화”(124)로 다시 읽힌다. 즉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어머니’ 표상을 경유하는) 선주체화된 여성과의 관계성 안에서 성찰되는 주체 욕망에 관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여성을 중심으로 자기 주체화의 욕망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리로 자기 표상을 직접 언어화하고 수행하는 플롯으로 구현된다. 이야기의 핵심은 영토와 가정, 왕이라는 ‘아버지’라는 표상 아래 남성의 명예로 표방되는 가부장적 가치를 걸머진 남성 인물이 그 가치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기준과 질서에 영향을 받는 여성이 남성 인물에 의해 배치된 여성 역할의 역학을 거부하고 남성적 가치를 심문하는 것에 있다.

남성 영웅에 의해 외부적으로 부여된 ‘어머니’ 표상을 여성의 언어로 전환하는 오디세우스 신화의 마스터플롯이 다름 아닌 전쟁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한데, 특히 여성 인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기 한국형 마스터플롯을 검토하고자 하는 바 그렇다.¹⁶⁾ 전쟁이라는 사건은 시대적 가치를 재생산하고 물려받을 적자(嫡子) 남성이 시험받는 대대적 상황을 의미한다. ‘전쟁’은 남성성이 대대적으로 전면화되는 동시에 탈락의 위기를 가시화하는 사건이며, 남성이 탈(脫)한 상황 속 여성이 남성적 언어가 여성을 타자화하는 구조를 자기 언어로 전복·재전유하는 전투의 장이기도 하다.

손정수는 이러한 오디세우스 신화 마스터플롯 및 ‘전쟁기’라는 특수성을 한국형 소설에 적용하기를 시도한 바 있다.¹⁷⁾ 손정수는 오디세우스 신화를

16) ‘전쟁기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은 오디세우스 신화를 한국전쟁기 모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마스터플롯으로 채택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오디세우스 신화 플롯은 오디세우스의 출정을 통해 영토 수호와 수복을 위해 ‘가부장’의 영역을 대대적으로 시험받는다. 이 과정에서 오디세우스는 ‘차기 가부장’이 아니며 이미 승인받은 ‘가부장’의 상징성을 심문당한다. 이는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남성 인물의 대대적인 여정의 서사가 단지 남성만의 것이 아니라, 남성 가부장의 부재와 조우를 통한 여성 인물들의 자기 성찰적 모험 서사로 읽히게끔 만드는 요소다. 남성 가부장의 부재를 초래하는 대대적 전쟁의 상황은 젠더 규범과 규율을 뒤흔드는 주요한 배경이며, 이는 상징적 남성 가부장이 부재하고 또 유명적인 형태로 재귀하는 모습을 서사화한 박완서와 오정희의 작품의 마스터 플롯으로 더욱 타당한 이유가 된다. 남성 주체의 욕망 서사와 관련해 많은 경우 고려되곤 하는 오이디푸스 플롯은 한국형 전쟁기 모녀 서사의 마스터플롯으로 채택하지 않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오이디푸스 플롯은 엄밀하게 말해 가부장의 규율 안에서 ‘차기 가부장’의 여정이다. 이는 오디세우스 플롯과 비교할 때 전방위적 위기가 아닌 남성 주체의 위기로 좁혀 그 배경이 전제되고 있고, 모친과의 관계성 또한 남성 규율 속에서 상징화된 여성의 규범으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 가부장의 자리에 오르고 그 질서를 좌우할 수 있는 상징적 가부장 남성이 전방위적 위기(전쟁기) 상태에서 여성에 의해 시험당하는 여정이자, 여성 인물이 이러한 남성 영웅을 관통하면서 ‘(만 혹은 친)어머니’ 표상을 중심으로 자기 정체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오디세우스 플롯을 읽을 때, 박완서의 전쟁기 모녀 서사를 한국형 마스터플롯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7) 손정수, 「전후 소설의 전개와 오디세우스 마스터플롯의 세 전형 - 「생활적」, 「광장」, 「무진기행」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6, 2022.

잘 알려진 모험 서사의 원형으로 보고 ‘전쟁기’라는 사건이 중요하게 작동함에 따라, 오디세우스 신화의 한국적 원형과 변형으로서 손창섭 등의 작품을 언급한다. 이 논문에서 오디세우스 신화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내 페넬로페가 있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온갖 고난을 겪어내는 이야기”¹⁸⁾로 설명된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오디세우스 플롯의 핵심이 남성 영웅을 통과하는 여성 인물의 자기 정체화에 있다면, 이 플롯은 궁극적으로 전쟁기 ‘어머니’라는 여성적 표상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의 다성적 자기 발화 서사가 된다. 따라서 한국형 마스터플롯으로 이 서사를 확장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은 전쟁기 남성 중심의 서사가 아니라 전쟁기 여성 인물의 서사가 적합해 보인다.

이에 본고는 오디세우스 마스터플롯의 한국형 구조를 박완서의 전쟁 서사를 통해 규명하고, 해당 마스터플롯에 대한 한국 소설의 확장·변용 가능성을 오정희의 사례와 비교해 살피고자 한다. 박완서를 근간으로 하는 전쟁기 ‘어머니’ 표상에 대한 플롯은 전쟁기라는 전방위적 위기 상황에서 가부장적으로 구조화된 ‘어머니 되기’를 거부하고 ‘다른 어머니 되기’를 시도함으로써 여성 주체가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탐구하고 선언해가는 과정을 다룬다. 이 논문에서는 박완서의 『나목』을 ‘어머니’ 표상을 재탐구하는 신화적 마스터플롯으로 보고, 오정희의 「저 언덕」을 그에 대한 변주와 확장으로서 살펴볼 것이다.

3. ‘어머니 되기’의 표상에서 ‘다른 어머니 되기’로 이행하는 한국형 마스터플롯

1) 전쟁기 ‘어머니’ 표상 이행의 한국형 마스터플롯: 박완서 『나목』

노성숙은 오디세이 신화를 사이렌, 키르케, 페넬로페라는 세 여성의 서사

18) 위의 글, 66쪽.

로 다시 읽기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증언적 발화 양식에 주목한 바 있다.

이러한 기억과 여성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개인적 삶의 경험들을 수집하고 재구성하여 의미화하는 ‘개인적인 자서전적인 기억’들 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여성들’의 기억 속에서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이야기들, 즉 신화나 구비문학작품, 설화 등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한 문화 안에서 원형적인 틀로 자리매김 하면서 다시금 개인적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노성숙이 강조하듯 반복적 패턴의 이야기 구조는 인간의 정체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원형’을 유지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집단적 여성들의 경험 및 기억의 재구성이다. 이를 한국 소설에 비취보건대 한국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유하는 여성 인물의 경험은 곧 다수 여성의 그것으로 환원되며, 이 인물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의 (젠더) 정체성을 확보해나간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전쟁에 대한 여성의 체험과 젠더적 자기 성찰과 관련해, 박완서의 전쟁기 서사가 지닌 ‘증언적 성질’이 익히 검토된 바 있다는 점²⁰⁾ 또한 박완서의 서사를 한국형 마스터플롯으로 설정하고자 함에 적극적으로 참고될 만한 요소임은 물론이다.

19) 노성숙, 앞의 책, 64쪽.

20) 박완서 소설이 지닌 전쟁기 모녀 서사의 증언적 성격에 대해서는 선우은실, 「한국 전쟁기 모녀 관계 중심 여성 서사의 계보화 및 구술사/생활사적 성격 탐구 - 박완서 『나목』, 황정은 『연년세세』를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58), 2023)의 2장을 참조하라. 이 글에서는 김양선이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 - 박완서의 전쟁 제현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제15권, 2002)에서 제출한 ‘증언의 양식’으로서 여성 서사의 특징을 짚으며, “어떤 체험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오는 자 즉 ‘당사자-되기’의 수행성을 실천하는 일에 미땅히 주목해야 한다. 즉 증언은 일련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그와 대결하는 ‘해석’의 소산이며, 증언에 참여하는 이는 ‘당사자-되기’를 시도하려는 이들로 확장된다”(221)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외 박완서 소설의 증언적 성질을 고찰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경재, 「박완서 소설의 오펜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32), 2011; 강용운, 「박완서 작품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기억과 주체의 형성」, 『인문학술』 1, 순천대학교인문학술원, 2018; 우현주,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복과 차이」, 『여성문학연구』 45, 2018; 이민영, 「노인 여성의 기억과 생존의 전쟁 서사」, 『현대문학연구』 (61), 2020.

박완서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전쟁기 경험을 작품에서 반복·변주하여 드러낸 바 있다. 이는 특정 사건을 자기 언어로 거듭 해석함으로써 역사를 서사화하는 증언적 성질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나목』(1970), 『목마른 계절』(초판, 1978),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초판, 1995), 『그 남자네 집』(초판, 2004)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이 작품들은 ▲전쟁기를 직접적으로 경유하고 있으며 ▲해당 시기를 거치는 청년 여성 인물을 초점 화자로 삼고 ▲전쟁에 의한 남성 가족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어머니와 직간접적으로 관계 맺는 딸이 ▲이에 대한 증오를 품으면서도 아내, 어머니 되기를 선택한다는 요소를 공유한다.

위 작품 가운데 이러한 요소가 최초로 드러난 소설은 『나목』이다. 이에 한국 소설 속 전쟁기 모녀 중심 서사의 마스터플롯의 기준점으로 『나목』을 살필 것이며, ‘어머니’ 표상을 중심으로 인물이 관계하는 양상을 토대로 젠더 성찰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덧붙여 『나목』의 ‘어머니’ 표상은 궁극적으로는 ‘모성’을 재개념화할 수 있고, 이 개념을 중심으로 전쟁기 한국 소설의 계보를 재구조화할 수 있으리란 점을 언급해둔다. 남성 중심적 구조에 대한 탈피는 이른바 ‘여성적 개념’ - 남성 중심적 구조와 연관성을 띠고 있으며 여성적 관점에서 재구조화될 수 있는 - 인 모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일정한 테마와 서사 구조를 공유하는 작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는 계보화의 기준을 일대기적 나열이나 남성 중심적 작품으로 선별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지양하고 여성적 원리로 재구성하는 방법론으로 고려될 수 있다. ‘어머니’ 표상 중심의 마스터플롯 탐구 및 그것의 변용을 살피는 본고의 작업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여성 - 문학사 쓰기의 한 사례로 시도되었음을 밝혀 둔다.

오디세우스 신화를 ‘어머니’ 표상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자기 정체화의 서사로 볼 때, 박완서의 『나목』은 다음과 같이 그 구조를 공유한다.

〈『나목』을 중심으로 한 전쟁기 ‘어머니’ 표상 중심 마스터플롯 표〉

오디세우스 신화 마스터플롯의 구조	『나목』	해석
남성 영웅	오빠	‘아버지’ 표상과 가부장제 구조가 옹호하는 이데올로기
사건	전쟁	남성 영웅(오빠)의 소멸
남성 중심적 여성 표상(A)	어머니	망령된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의 영향 속에서 남성적 언어로 주어진 정체성을 수행하는 여성. 그럼으로써 그 젠더 구조를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
주체적 자기 표상을 시도하는 여성	이경	어머니를 통해 남성 중심적 표상에 종속되고 얽매이는 여성적 삶의 질서를 목격하고 어머니에 저항함으로써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를 배반하려는 인물
여성 인물의 ‘다른 어머니 되기’(‘다른 어머니 되기’(A’))의 수행적 실천	이경의 아내/어머니 되기 (황태수와의 결혼) cf) 이경과 옥희도의 결별	이경이 선택하는 결혼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접속해 있는 ‘남성적 이상’에 부합하는 옥희도(남성 중심 재생산에 따른 ‘미래’의 구축)의 탈 세속적 이상성으로는 여성이 주체적 자기 정체화를 수행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알고 끝내 그를 거부하는 것으로 선택됨. 남성적 이상성과 대비되는 세속적인 현재의 존속(황태수)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다른 아내/어머니 되기’를 수행적으로 실천함

『나목』은 전쟁기를 관통하며 남성 가족(오빠)을 잃은 뒤 어머니의 삶이 하염없이 무가치해지는 것을 목격하는 이경의 자기 정체화 서사다. 어머니는 전쟁통에 장남을 잃은 뒤 ‘산 송장’처럼 자신의 삶을 놓아버린다. 이경은 실질적으로 그녀를 보살피는 존재로, 오빠가 사라지자 모든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듯이 구는 어머니를 증오하면서도 그녀에 대한 불가해한 애착을 버리지 못한다. 이경은 가부장이 상실되거나 부재한 전쟁기에 사실상 집안의 경제를 책임진다. 그러나 이경의 경제 활동은 ‘남한 가부장’에게 대타자로 의식되는 ‘미군’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갈보깃’이라고 폄하된다. 이런 과정에서 이경은 ‘남성 영웅의 상실’과 그에 따른 ‘남성 중심적 어머니 표상’을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며, 그것을 배반하는 삶을 수행코자 한다.

이경은 기왕의 질서에 존속된 ‘어머니’(A)에서 ‘다른 어머니’(A’)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선택한다. ‘다른 어머니 되기’에 대한 수행의 일환인 황

태수와의 결혼은, 이경이 어머니를 통해 비쳐 보인 남성 중심적 기율을 내재화한 여성 젠더를 심문하고 배반하는 행위다. 이경이 종내 선택하는 결혼은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가부장 기율의 자장에 속하는 ‘가정’에 안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남성 가부장 즉 남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미래(남성 가족 중심으로 배치되는 차기 남성의 출산을 의미하며, 이는 죽은 오빠에 투영하는 어머니의 미래상과 관련된다)에서 벗어나려는 수행성을 지닌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이는 죽은 ‘오빠’의 변형이자 또 다른 ‘남성 영웅’으로 간주되는 옥희도와, 그 대척점에 서 있는 황태수에 이경이 자신을 기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주체적 실천이기도 하다. 이경이 자신의 삶을 기입하고자 했던 옥희도는, ‘민족으로 표상되는 혈통 이데올로기의 이상성을 배반하는 듯한 사람들로 가득한 PX라는 공간에서 홀로 영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가정에 안착한 남성 가부장의 지위를 지고 있음에 따라 이미 획득된 것이기도 한 이 영속적 미래 시간성은, 궁극적으로 이경이 배반하고자 하는 A의 기율에 해당한다. 이에 이경은 궁극적으로 ‘어머니’(A)로의 귀환에 등을 돌리고, 세속성으로 현재를 환기하고 민족적 기율을 배반하는 쪽에 서는 황태수와의 결혼을 선택한다. 이는 종래에는 ‘남성 영웅’ 없이도 가치 있는 ‘다른 어머니 되기’가 가능함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어머니’ 표상의 의미를 전복시킨다.²¹⁾

21) 딸의 ‘다른 어머니 되기’는 상징적 아버지 기율에 ‘의해’ 승인되는 어머니 자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에 방점이 찍힌다. 결혼 제도를 선택하고 아내/어머니 자리에 진입하는 것이 곧 ‘아버지’ 세계에 대한 배반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최현숙의 에세이 일부를 참고한다. 최현숙은 에세이 『두려움은 소문일 뿐이다』(문학동네, 2023)에서 여성의 자기 발화를 통해 증언적 형태로 자기 정체화를 수행한다. 이 글에서 그녀는 자기의 생애에 대해 진술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부의 삶을 증언하기도 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1953년 휴전 직전 혼인해서, 농촌 봉건사회를 떠나 서울로 이주한 후 다섯 자식을 키우며, 돈은 안 벌고 권위적이지만 한 서방을 무지 미워하면서 주 생계 부양자로 맹렬하게 살았다”고 진술된다. 그녀 어머니의 생애주기는 박완서 소설 속 청년 인물과 부분적으로 유사한데, “한국전쟁중이던 십대 말 좌익운동 단체 여성 부장을 했던 짧은 경험”(97)에 대한 감수성이 여전히 남아 그녀의 분열적 내면을 구성했다는 해석은 박완서의 전쟁기 모녀 서사의 패턴을 유효하게 경유하는 『목마른 계절』의 ‘진이’를 떠올리게 한다. 남성 중심 사회의 영향으로 결혼에 진입하게 되었을지라도, 여성은 남성이 부여한 ‘어머니’의 자리와 대결하고 있으며, 이로써 ‘양반적 정체성을 지닌 생계부양자 가모장 어머니’로 그녀의 어머니는 자기를 정체화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생애에 대한 재해석이 그녀의 딸 최현숙에 의해 매개되고 재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하자. 이는

중요한 것은 남성의 부재에 따른 남성 중심적 제도의 구성 요소가 여성에 '의해' 폭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된 인물은 '남성 영웅'인 아들이 아니라, 그를 관통하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딸-여성에게 있다. 이때 '남성 영웅'이 가부장제의 현신으로 상징성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박완서의 소설 속 전쟁기 남성 가부장의 상실이란 곧 '망령된 남성 가부장'으로 같음된다. 이러한 유령적 존재에 매여 있는 모친(A)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어머니 되기'(A')를 수행적으로 실천해나가는 청년 여성의 행보에서, '어머니'는 남성적 기율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명명으로 탈환된다.

2) 한국형 마스터플롯의 변형 : 오정희 「저 언덕」

박완서를 기준으로 한 전쟁기 어머니 표상에 대한 마스터플롯은 전쟁 사건 이후 여전히 그 시기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망령된 아버지의 귀환'과 그에 대한 저항의 패턴으로 오정희의 「저 언덕」에서 변용된다. 이에 앞의 [표]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목』과 「저 언덕」의 마스터플롯 확장 양상 비교 표〉

오디세우스 신화 마스터플롯의 구조	『나목』	「저 언덕」
남성 영웅	오빠	아버지

청년 여성 인물을 초점 화자로 삼아 전쟁 체험과 여성의 자기 정체화를 수행하고 있는 소설의 형식이, 여성의 자기 정체성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최현숙은 이러한 모부의 삶과 대결하고 그들의 삶을 헤아리는 과정에 자기 삶을 겹쳐놓고 자기 경험을 재해석한다. 그녀는 특히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현숙의 표현에 따르면 '양반집 규수'로 자신을 키우고 싶어 한 아버지의 욕망에 저항하기 위해 그녀는 세 번째 가출에서 (지금은 전 남편이 된) 당시 애인과 혼인 신고를 하고 출산한다. 이는 그녀의 아버지의 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녀의 방편인데, 관계에 따른 주체의 내면의 분열과 갈등을 헤아리지 않고 표면적 수행의 모습만으로 '어머니 되기를 되풀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훗날 최현숙은 "결혼은 사회 구성원들의 재산과 자원을 대물림하게 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막강한 제도이자 관습"(79)이라고 단언하고, 부모 사후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족(族)과의 단절을 선언했다고 밝힌다. 부의 관습에 저항하는 것으로서 결혼 관습이 적극적으로 이용되었고 시간이 지난 뒤 그것을 물리는 주체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떠올릴 때, 우리는 행위의 결과가 지닌 상징성이 아닌 행위의 목적에 따른 전복성을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사건	전쟁	전쟁, 반공, 민주화 운동
남성 중심적 여성 표상(A)	어머니	친모, 서모
주체적 자기 표상을 시도하는 여성	이경	원단
여성 인물의 '다른 어머니 되기'(다른 어머니 되기(A'))의 수행적 실천	이경의 아내/ 어머니 되기 (황태수와의 결혼) cf) 이경과 옥희도의 결별	원단의 결혼과 출산 (승재와의 단란한 가정 구축) cf) 필준과의 이별

『저 언덕』(1989)에는 6.25를 겪고 반공을 외치며 단지(斷指)를 서슴지 않는 비틀린 ‘민족주의자’가 되어버린 노름꾼 아버지가 등장한다. 아버지는 참전 용사이자 상이군인으로 되돌아오기는 했으나 ‘국가=민족=아버지적 질서’로 표상되는 상징성은 훼손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의 딸이자 서사의 주요 서술자인 원단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역사란 왜곡된 민족성과 초라한 가부장성에 복무하는 형식으로 재기술된다.²²⁾

그런데 이러한 남성 인물의 역사에 대한 진술의 방식은 3인칭 시점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종내 그의 역사는 ‘망령된 가부장의 유령화되는 언어’로 해석된다. 이에 상징적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회귀하여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전쟁 이후 상실된 주체성을 저 스스로 폭로하는 것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이러한 ‘유령적 남성’의 자백이(상징적 의미의 탈/혹은 친 어머니가 되는) 딸 여성에게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역사는 여성 인물의 자기 정체화 서사 안에 재편된다. 이러한 부친 역사에 대한 서술은, 박완서 소설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직접적인 의미로서 유령화된 ‘영웅 남성’의 변주다.

한편 부친이 망령된 아버지상을 좇느라 현실을 모조리 상실해버리는 동안 출산과 생계에 대한 책임을 걸머지는 친모의 형상은 어머니 표상(A)과 다른 어머니 표상(A')를 동시에 지닌다. 원단은 과거를 반추하여 망령된 ‘아버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머니 표상에 대한 재해

22) 시점을 때때로 전환해서 남성 인물의 관점과 목소리를 전면화하여 직접 이야기하게끔 하는 형식(‘바람의 언덕’) 혹은 남성 인물이 겪어온 역사를 3인칭 진술을 사용하여 상세히 묘사하는 오정희 소설의 특징은 이러한 방식으로 발견된다.

석 또한 시도한다. 가부장제의 기율에 옴아매진 모부 슬하에서 딸로서 그들과 관계 맺어온 원단을 초점 화자로 삼는 이 소설의 핵심에는 단연 모부의 삶에 대한 ‘재해석’을 관통한 원단의 탈-가부장제의 시도 및 ‘다른 어머니 되기’로의 정체화가 놓여 있다. 이는 『나목』의 이경의 결혼이라는 플롯에 대한 확장적 변형으로 보인다. 『나목』이 ‘다른 어머니 되기’의 선택의 시점에서 결말을 맞이하는 것에 비하면, 「저 언덕」에서는 전쟁기 체험 이후로 그 진술이 연속된다는 점에서 아버지적 규율에 저항하는 여성의 수행성이 확장적으로 전개된다. 「저 언덕」에서 박완서 서사에 기초한 ‘영웅 남성’의 표상은 ‘재귀한 망령된 아버지’로 한 차례 전환되고, 전쟁기 체험의 모부의 삶에 영향을 받은 자녀 여성은 전쟁 이후의 여파 속에서 민주화 운동 시기를 거치며 분열적 자기 정체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여성의 분열적 자기 정체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 원단은 아버지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며 사는 동안 방치된 자식이었으며 오로지 ‘가부장’이라는 거대한 대의로 그 지위가 유지되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뛰어들다. 그러나 학생운동이 또한 ‘망령된 아버지’로 상징되는 과거를 대타자로 삼고 있음을 직감하는 원단은 “자신을 깨뜨리고 또 한 번 태질쳐버리는” 방식으로 “세상에 대한 복수”²³⁾를 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운동권 동지였던 필준과의 연애와 하룻밤이다. 운동권 시절 잠깐 지속던 필준과의 연애는 『나목』에서 이경이 옥희도를 통해 본 것과 유사하다. 즉, 실패한 ‘가부장’ 영역에 이미 진입해 있는 남성적 규율에 비쳐보이는 불가능한 미래의 표상에 자신을 비취보는 일이다. 이에 이경이 황태수와의 결혼을 선택했듯 원단의 또한 선생인 승재와의 결혼을 선택해 안락하고 단란해 보이는 ‘가정 주부 되기’를 선택한다.

운동권 시절을 함께 보낸 동지로부터 현재의 단란한 삶을 비난받으면서도 주부의 삶을 고수해가던 어느 날 불청객 아버지가 원단의 집에 머물기를 선언하는 장면과 함께, 그녀는 ‘망령된 남성 영웅’을 피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23) 오정희, 「저 언덕」, 『저녁의 게임』, 문학과지성사, 2020, 125쪽.

‘다른 어머니 되기’의 표상을 구축해나감을 전면적으로 마주한다. 원단이 선택한 ‘다른 어머니 되기’는 어떤 미래도 지속시키지 않으려는 망령된 ‘남성 영웅’의 상실된 상징성과 그에 바쳐지는 출산과 양육(친모, 서모)이다. 따라서 그녀가 꾸리고자 하는 ‘단란함’이란, 안락한 아내 되기를 표면적으로 취하되 세상이 승인한 남성적 규율(남편)을 관통해 출산하여 스스로를 ‘단란한 어머니’로 지칭함으로써 양육의 징그러움을 이번에는 키워지는 자가 아니라 키우는 자로서 재해석하고 추체험/재체험하는 일이다. 요컨대 이 서사는 ‘아버지적 질서’를 심문하는 딸의 자기 언어화의 욕망 서사로, 오디세우스 마스터플롯에 기틀을 두는 박완서식 원형에 대한 변형이다.

이 논의를 추후 확장하고자 함에, 지금까지 살펴본 남성에게 바쳐지는 아내/어머니(A)에서 여성이 재해석하고 스스로 호명하는 주체적 명명으로서 ‘다른 어머니 되기’의 실천을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와 패턴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마스터플롯의 확장적 요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차후의 과제로 남기되 아래에 그 기본적 요소에 대해 언급해둔다.

아래는 <한국 소설의 전쟁기 여성형 마스터플롯에 대한 세분화 표>를 해석하기 위한 지표이다.

1. ‘초점 인물’은 ‘관계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젠더 규범 및 정체성을 확인한다.
2. ‘초점 인물’과 ‘관계 인물’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로 드러난다.
3. ‘관계 인물’은 한국전쟁 시기에 특정한 ‘사건’을 경험한다.
4. 이 ‘사건’으로 인해 ‘관계 인물’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젠더 규율의 상징성을 ‘초점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전면화한다.
5. ‘초점 인물’은 이 ‘상징화’된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때 초점 인물이 ‘이상화’하는 요소를 지닌 인물과의 관계를 탐색하나 곧 가부장적 기율에 의해 선택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
6. ‘초점 인물’은 ‘선택’을 한다. 이때 이 선택은 딸의 결혼 및 ‘다른 어머니 되기’로 드러난다.

위의 요소에 따라 서사를 비교하여 재배열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한국 소설의 전반기 여성형 마스터플롯에 대한 세분화 표〉

	박완서, 『나목』	오정희, 『저 언덕』	참고 사항
집필 시기	1970	1989	
시간적 배경	1950년 한국전쟁 당시~전쟁 직후의 근미래	1950년 한국전쟁~1980년대 민주화 투쟁 이후	
초점 인물	이경(딸)	원단(딸)	
관계 인물 (서사 내 주요 관계)	어머니(모녀)	아버지(부녀)	이때 우측 항목의 ‘부녀’에서, ‘아버지’는 끊임없이 어머니를 환기시키는 대타적 존재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폭넓은 의미의 ‘모녀’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후 ‘관계 인물의 상징화’를 고려할 때, 좌측 항목의 ‘모녀’는 가부장성의 전면화와 목격을 가능케 하는 관계 양태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큰 틀의 아버지적 질서를 의미하며, 구조적 원리로서 ‘부녀’로 해석이 가능하다.
사건 : 관계인물을 통해 가부장적 표상을 전면화하도록 만드는 사건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인한 오빠의 죽음 : 어머니의 충격과 그로 인한 삶의 의지 상실에 따른 딸의 충격	전후 아버지의 부재와 방치로 인한 어머니의 죽음 및 남동생 윤식의 죽음 :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딸의 충격과 상징적 차기 가부장의 죽음 목격	
관계 인물의 상징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생사의 질곡에 가로놓인 가부장성(재생산)의 위기 : 후대의 재생산으로서의 아들의 결혼과 출산(=어머니의 삶의 의미)	전쟁에 가로놓인 대의로서 이데올로기에 바쳐지고 재생산되는 가부장성의 허울 : 대의에 투신하는 아버지로서의 자기 명명을 위해 바쳐지는 아내 여성의 삶/목숨과 자녀의 방치	남성이 이끄는 ‘내일로’ 표상되는 미래에 할애되는 여성 존재의 위치를 확인한다.
초점 인물의 이상화 (理想化)	옥희도(미래 지향) : 생업을 위해 예술의 긍지 없이 당장 오늘을 존속시키는 근시안적인 노동을 존속시키는 px의 화가들과 비교되는 존재. 과거의 영속과 유구한 미래를 타진하는 일로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나, 유부남이면서 미혼 여	학생운동(민속연구회 활동)과 민속연구회 소속의 운동권 학생인 필준과의 연애(미래 지향) : 학생운동은 어리석은 이데올로기 싸움의 전망 없음을 비판하고 주체적으로 미래를 그리는 일을 의미하며 원단에게는 ‘선망’하는 시공간으로서 미래에 가	자신이 이끄는 ‘내일로’ 표상되는 미래를 상징. 시대의 기운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된다.

	<p>성인 '초점 인물'과 관계성을 뚫으로써 '가부장적 기술'에 대한 극복이 아닌 재생산에 그칩. 이에 '초점 인물'과의 미래도 성립되지 않는다.</p>	<p>닿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버지로 표상되는 과거의 대문자성이 우스꽝스러워지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대타자를 극복하는 대타자로서 학생운동이 자리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그 비웃음에 가담한 필준 또한 원단이 선명하는 곳을 같이 이상화하는 존재가 아님이 탈로난다.</p>	
<p>초점 인물의 선택</p>	<p>황태수와의 결혼 및 어머니 - 되기</p> <p>- 어머니가 추구하는 '결혼'(가부장제의 존속)에 대응하는 이경의 결혼 : 남성 차기 가부장의 부재 이후 어머니에게 상징적으로 선고된 죽음을 '생'으로 전복시키려는 악의적 시도 속에서 선택되는 것이다.</p> <p>남성중심적 기술에 헌신하는 대문자 어머니에 대한 배반이자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로, 남성 가부장에게 헌신했던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 - 되기'의 역사를 다시 쓴다.</p>	<p>승재와의 결혼 및 어머니 - 되기</p> <p>- 대문자 아버지(전쟁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배반으로서 '학생운동' : 허무한 이데올로기의 극복으로서 취한 선택이며, 운동권 남성과의 연애에 결별을 선고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p> <p>- 대문자 남성성의 재생산인 학생운동의 성격을 직시하고 '가부장'의 기술 한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쓰기 하는 것으로서 결혼 및 어머니 - 되기 : 부재하고 허망한 가부장의 자리 위에 '어머니 - 되기'의 역사 덮어쓰는 것이다.</p>	

4. 나가며

오래도록 반복되는 내러티브의 구조를 여성적 개념으로 환유하는 것은 새로운 원형 만들기에 대한 시도다. 본고는 남성 영웅 중심의 마스터플롯을 남성 영웅을 관통하는 여성 주체의 자기 정체화의 과정으로 고쳐 읽고자 하였다. 이는 기왕의 남성적 플롯에 빛대어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플롯이 여성적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재전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고쳐 쓰기 하는 일이다. 본고는 '어머니' 표상을 중심으로 오디세우스식 마스

터플롯을 재검토하였으며, ‘어머니’ 표상에 대한 인물간 관계성을 중심으로 박완서를 한국형 전쟁기 서사의 마스터플롯으로 두고 오정희의 작품을 그 마스터플롯에 대한 확장적 예시로 분석하였다.

오디세우스 마스터플롯은 ‘남성 영웅’을 세계의 시험에 통과하여 적자 남성으로서 귀환하는 서사로 읽혀오곤 했다. 이때 ‘남성 영웅’ 즉 상징적 아버지 질서로의 귀환과 현현을 완성시키는 것은 남성 인물의 능력 그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성적 구조가 재생산했다고 여겼으나 실은 여성의 다성적 발화에 따라 재해석되는 ‘어머니’ 표상의 심문에 의해 구현된다. 이에 오디세우스 플롯은 남성 영웅이 부재하는 전쟁기 시기 ‘어머니’ 표상을 자기 정체화하는 여성 인물의 젠더 정치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플롯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어머니’ 표상과 이에 대항하는 것으로 여성이 쫓아 나가는 ‘다른 어머니 되기’의 구축이라는 신화적 마스터플롯을 한국형 서사에 접목시킬 때, 박완서의 『나무』은 주목을 요한다. 어머니 여성을 통해 남성적 규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젠더 정체성의 구조를 바라보고, 그것을 뒤집으려는 여성이 다시금 ‘어머니 되기’를 선택할 때, 이 앞에 ‘다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음을 청년 여성의 자기 정체화 서사는 보여준다.

한편 유명화된 아버지적 규율과 그에 대한 ‘다른’ 어머니 되기의 실천의 양태는 오정희의 「저 언덕」에서 원단의 단란한 가정 꾸리기로 확장되어 변용된 것처럼 보인다. 원단의 부친이 경험했던 한국 전쟁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이러한 유명 같은 영향 속에서 ‘다른 어머니 되기’를 선택하는 딸 여성의 시도가 가로놓여 있다는 점이 박완서 마스터플롯의 확장형으로 읽힌다.

본고에서 시도한 신화적 마스터플롯의 한국형 서사에의 적용 시도는, 추후 ‘어머니’ 표상과 같은 여성적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소설의 계보를 재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남성 작가 혹은 남성 인물 중심의 서사 또한 여성적 개념을 주축으로 한 마스터플롯의 원리 속에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한국 문학사 서술의 젠더적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12.

오정희, 「저 언덕」, 『저녁의 게임』, 문학과지성사, 2020.

H. 포터 에벗, 『서사학 강의』, 우찬제 외 역, 문학과지성사, 2010.

노성숙, 『사이렌의 침묵과 노래 - 여성주의 문화철학과 오디세이 신화』, 여이연, 2008.

레나타 살레클, 『사랑과 증오의 도착들』, 이성민 역, 도서출판 b, 2003.

최현숙, 『두려움은 소문일 뿐이다』, 문학동네, 2023.

피터 브룩스, 『플롯 찾아 읽기 - 내러티브의 설계와 의도』, 박혜란 역, 강, 2011.

강용운, 「박완서 작품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기억과 주체의 형성」, 『인문학술』 1, 순천대학교인문학술원, 2018.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 - 박완서의 전쟁 재현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 2002.

선우은실, 「한국 전쟁기 모녀 관계 중심 여성 서사의 계보화 및 구술사/생활사적 성격 탐구 - 박완서 『나목』, 황정은 『연년세세』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8), 2023.

손정수, 「오디세우스 마스터플롯의 여성적 전도 과정 - 「무진기행」의 대항서사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8), 2020.

_____, 「전후 소설의 전개와 오디세우스 마스터플롯의 세 전형 - 「생활적」, 「광장」, 「무진기행」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6), 2022.

우현주,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복과 차이」, 『여성문학연구』 45, 2018.

이경재, 「박완서 소설의 오빠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32), 2011.

이민영, 「노인 여성의 기억과 생존의 전쟁 서사」, 『현대문학연구』 (61), 2020.

Re-exploring the Feminine Gender perspective in Mythological Masterplots and Its Application to Korean Masterplot

- Focused on the Representation of ‘Becoming (Different) Mother’ in the Works of Park Wan-seo and Oh Jung-hee -

SUNWOO EUNSIL *

This study aims to rewrite literary history by exploring recurring patterns known as the “masterplot”. Taking a feminism perspective is crucial to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cultural norms on these patterns, particularly the male-centered theme. By reevaluating and restructuring the masterplot’s gender aspects, it can be rewritten, allowing for a critical analysis of its gender implications.

The study focuses on breaking down the male-centered mythological masterplot and emphasizing the “feminine concept” as the central structure of storytelling. For instance, the representation of wartime women’s “becoming (different) mother” undergoes transformation from a male hero’s self-discovery narrative to Korean masterplot that centers on women characters, as seen in Park Wan-seo’s works.

By identifying these structural similarities and their potential for transformation, this study compares the works of Park Wan-seo and Oh Jung-hee, aiming to rewrite Korean fiction history from a gendered perspective, revitalizing femininity as a central plot in Korean war-era fiction.

* doctoral program at Inha University, majoring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Key words: mythology, masterplot, women narrative, park wan-seo, naked tree, oh jung-hee, that hill

